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지금부터가 중요”

배·사과 농가 재배현황 전수조사 실시...적기 방제 위한 약제 배부 총력 청결한 과원관리·정기 예찰 주의사항 실천 당부...“발병 시 신속한 신고”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과수 재배현황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친 배·사과 과중에 대한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약제 배부 대상농가 파악 및 적기방제를 위해 추진됐다.

과수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잎과 줄기, 열매가 까맣게 고사되는 병이다. 마땅한 치료약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적기 방제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다.

화상병 발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피해면적(20.9.27.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전체 626농가(330.6ha)로 주로 충북·경기·충남·강원 지역에서 발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를 생산하는 나주시 지역은 화상병 발병 시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극심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올해 전북 익산의 한 사과농장에서 병이 발생하는 등 전염세가 남하하고 있어 관내 사과재배 농가 또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는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내년 3월 전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 전정도구 소독제를 지

원하는 한편 홍보전단 배부, 포스터 부착 등으로 농가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 간 농가 예찰반을 편성해 화상병 유입,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수 농가에서는 청결한 과원관리를 비롯해 과수원 출입 시 인력·장비 수시 소독, 건전한 접수·묘목 사용, 잔재물 이동금지 및 매물, 과원 내 외부인 무단출입 제한, 야생 동물 접근 차단, 예방 교육 참석 및 정기 예찰에 힘써야 하며 발병 즉시 신고(대표전화 1833-8572)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



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정기 전정시기인 지금부터가 매우 중대한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정기 예찰과 주의사항 실천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전정도구 및 농기구 소독, 정지전정 등으

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의 매물 처리를 비롯해 발병 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구례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자활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는다

구례군은 그간 적극적인 자활 참여자 발굴과 자활사업 운영으로 매월 70여명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오고 있다. 김부각 및 꽃차 가공 생산, 오지마을 도시락 제공사업 등 지역특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도 구례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등 지자체와 자활센터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장관 표창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자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립·자활지원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감 과수 전정전문가 양성 쾌거

제10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주관 18명 배출 성과



곡성군이 제 10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주관 감 전정 전문가 과정교육을 통해 18명의 감 전정 전문가

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정은 상품성 높은 과일을 기르기 위해 과실수의 불필요한 가지들

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로 다수의 농가가 전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작년 11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금년 전정전문교육 5회, 현장실습 12회, 총 17회의 감 전정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최종 심사를 통해 22명의 교육생 중 18명의 전정 전문가를 배출했다. 최종합격한 전정 전문가는 인정서가 발급되고 “곡성 감전정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곡성=양혜영 기자

‘과일의 고장’ 장성군, 내년 과수 관련 공모·시범사업 다수 선정

사업비 15억원 확보

장성군이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실시한 과수 관련 2021년 공모 및 시범사업에 연달아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루비에스, 패션프루트 등 이색 과일을 재배해 급변하는 소비시장 선점에 나선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공모사업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과일생산단지 육성사업’은 1인 가족 증가와 곱질 채 먹을 수 있는 과일 선호 등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성향을 반영한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군은 루비에스, 피크픽, 아리수 등 사과 중소과 전용 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전남 지역 최대의 사과 산지로, 재배면적 220ha 가운데 80% 이상이 후지 품종이다. 수확기가 11월에 집중되어, 인력 및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사과 중소과 품종을 도입하면 수확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육성사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열대과일을 국산화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군은 5°C 이상에서 재배할 수 있어 난방비 등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패션프루트(백향과)를 육성 작목으로 선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에 들어간다.

새콤달콤한 맛과 다채로운 향을 지닌 패션프루트는 고급 디저트 과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아열대작목이다. 비타민C가 석류보다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니아신, 에스트로겐, 칼륨 등이 풍부해 ‘여성의 과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과 ‘지중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에 선정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와 경영비용 감소를 위한 기술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과수 관련 공모 및 시범사업 선정이 과일의 고장 장성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021년에도 명품 과일 재배를 적극 지원해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 출범...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2022년 12월 9일까지

담양군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

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 시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 및 국가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도청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